

한국인의 정치의식의 변화: 1945년과 1985년

吉 昇 欽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目 次〉

1. 序論
2. 엘리뜨의 政治意識과 市民의 政治意識
3. 韓國人の 保守·進歩主義意識
4. 韓國人の 民主主義意識
5. 結論

1. 序論

韓國人の 경우 政治意識이라면 親美主義·反美主義, 親日主義·反日主義, 容共主義·反共主義·保守主義·進歩主義, 民主主義·反民主主義, 近代化指向性·傳統指向性等 多様하기 그지 없다. 거기에 政治意識 中에는 엘리뜨가 大衆의 與論을 特定方向으로 操作하기 위해서 만든 政治理念의 結果에서 由來된 것, 또는 엘리뜨의 操作과는 別途로 社會經濟構造의 變化, 所得分配의 不均衡의 結果로 大衆사이에 自生的으로 생기는 것 따위가 있다는 사실까지 감안하면 韓國人の 政治意識의 多樣性은 더욱 복잡해 진다.

本稿에서는 지난 40年間의 韓國人の 政治意識의 變化를 다음 두가지 사실을 留念하면서 다루기로 하겠다. 첫번째는 親美·反美主義, 親日·反日主義, 容共·反共主義等과 같이 主로 外의 要因에 의해서 派生한 政治意識은 다루지 않고, 關心을 主로 國內의 要因에 의해서 生成되는 保守·進歩主義 및 民主·反

民主主義의 두 次元에 局限시키기로 한다. 두번째는 政治意識은 主로 엘리뜨가 만들어서 大衆에게 普及시키면 그것이 곧 大衆의 政治意識이 되는 것처럼 보는 傾向이 많은데, 本稿에서는 大衆에 의해서 自生的으로 生成되는 政治意識도 있어 왔고 또 이 두 종류의 意識은 相互間에 交互作用을 하면서 共存해 왔다는 것을 강조하기로 하겠다.

本稿가 主張하려는 主題는 韓國政治의 지나간 40年史에 있어서 上記한 두 가지의 政治意識, 즉 엘리뜨에 의해서 操作된 政治意識과 大衆사이에 自生的으로 생기는 政治意識 두 가지 중 前者의 比重은 점차 줄어들고 後者の 比重이 점차 커가고 있다는 것이다.

2. 엘리뜨의 政治意識과 市民의 政治意識

과거의 파레토, 모스카等에 의해서 代表되는 엘리뜨理論, 또는 최근의 슘페터, 베렌슨, 립셋, 다알等에 의해서 代表되고 있는 엘리뜨民主主義理論에 의하면, 市民의 政治意識은 엘리뜨에 의해서 비교적 쉽게 操作·生成될 수 있는 것으로 理解되고 있다. (Fletcher, 1971: 605~614; Mosca, 1939; Schumpeter, 1942, chap. 21; Berelson et al., 1954, chap. 14; Lipset, 1959, chap. 4; Dahl, 1962, chap. 28).

엘리뜨理論의 創始者인 파레토에 의하면, 市民은 정치, 경제, 학문, 문화, 스포츠, 음악등 각종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데, 그들은 다시 각자가 自己分野에서 要求하는 資質을 어느 정도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엘리뜨」와 「非엘리뜨」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 엘리뜨란 社會構成員 中 極小數를 가리키고 非엘리뜨란 大多數를 가리킨다. 그런데 파레토에 의하면, 엘리뜨 階層이 가지고 있는 信念 思考方式 價值觀等 소위 「殘基」(residues)라고 불리는 것들은 그대로 非엘리뜨階層에게 普及되어 엘리뜨階層의 「殘基」가 社會全體構成員의 「殘基」가 된다는 것이다. 즉 파레토는 大衆의 政治意識이 엘리뜨에 의해서 操作·生成된다는 理論을 만든 創始者이다. (Fletcher, 1971: 608)

파레토와 時代를 거의 같이 하는 모스카는 大衆의 政治意識이 엘리뜨의 政治意識에서 由來한다는 사실을 더욱 명료하게 소개하고 있다. 모스카에 의하면, 社會構成員은 어느 社會, 어느 時代에나, 그리고 어떤 政府의 形態(民主主義의 體制도 포함)를 가진 社會에서도, 「支配階級」(ruling class)과 「被支配階級」

(ruled class) 두가지로 大別된다는 것이다. 勿論 여기서도 前者は 小數이고, 後者は 大多數이다. 그런데 極小數가 大多數를 支配할 수 있는 것은 크게 두가지 사실때문이라는 것이다. 하나는 支配階級에게는 同一한 目標가 있고 또 同一한 目標下에 相互間에 結束할 수 있는 組織力이 있는데 反하여 彼支配階級에게는 共通的 目標, 組織力이 없다는 것이다. 모스카는 支配階級의 이상과 같은 同一한 目標, 組織力を 「權力의 內的 源泉」(de facto source of power)이라고 부르고 있다. 다른 하나는 「權力의 外的 源泉」(de jure source of power)이다. 모스카에 의하면, 支配階級이 權力의 安定的 維持를 為해서는 權力의 內的 源泉은 外的 源泉에 의해서 美化되어야 權力의 合法性, 正當性이 생긴다는 것이다. 모스카는 權力의 外的 源泉을 「政治的 理念」(political formula)이라고 부르고, 여기에 支配階級이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 價值體系, 信念體系, 또 支配階級이 자기의 權力基盤을 美化하고 正當化하기 為해서 操作해 내는 각종의 이데올로기, 價值體系, 信念體系 等을 포함시키고 있다. 물론 모스카가 말하는 「政治的 理念」은 彼支配階級에게 그대로 먹혀 들어가 그들의 政治意識으로 化한다는 것이다. (Mosca, 1942 : 70).

政治意識이 以上과 같이 엘리뜨에 의해서 操作 · 生成되어 大衆에게 一方의 으로 주어진다는 理論은 최근의 엘리뜨民主主義理論家들에 의해서도 信奉되고 있다. 슘페터, 베렌슨, 립셋, 다알等 一連의 學者들에 의해서 代表되고 있는 엘리뜨民主主義理論에 의하면, 大部分의 市民은 政治에 對하여 많은 關心을 베풀고 政治參與에 적극성을 보이는 그려한 「政治的 人間」(homo politicus)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들은 私生活에 바빠 쟁기고 있고, 또 어쩌다가 시간의 여유를 얻어도 그것을 政治的인 일에 쓰기보다는 자기의 心身의 휴식에 쓰거나 취미 等에 쓰는 선량한 小市民이라는 것이다. 더욱기 政治的인 일에 關心을 갖고 介入하는 것은 다른 일과 같이 行爲者的 時間, 金錢, 情熱, 에너지 等 소위 「政治的 費用」(political cost)의 投入을 要求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補償의 크기가 投入한 費用만큼이나 되겠는 것이다. 엘리뜨民主主義理論家들은 한 발 더 나아가 엘리뜨는 民主政治에 必要한 資質, 態度, 價值觀을 가지고 있는데 反하여 一般市民들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否足하기 때문에 오히려 政治는 엘리뜨들에게 一任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論理마저 전개하고 있다. 따라서 一般市民에게 政治意識이 있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엘리뜨에 의해서 操作 · 生成된 것이지 一般市民에 의해서 自生的으로 生成된 것이 아니라는 結論을 얻어 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特히 韓國社會와 같이 政治的, 社會經濟的 變動을 通하여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은 이상과 같은 理論의 基盤을 점차 弱化시키고, 政治意識이란 엘리뜨에 의해서만 操作·生成되는 것이 아니고 一般大衆에게 自生的으로 生成되어, 위에서 操作·生成되어 아래에 傳達된 政治意識과 相互交互作用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政治意識 또는 社會意識은 크게 「知的 要因」(cognitive element), 「感性的 要因」(affective element) 그리고 「評價的 要因」(evaluative element)等 3者로 構成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Parsons and Shils, 1951 : 51) 그런데 以上 엘리뜨理論家 또는 엘리뜨民主主義理論家들은 그들의 理論을 主로 政治意識의 知的 側面만 보고 展開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확실히 政治意識의 知的 側面만 보면 政治的 知識量, 情報量, 判斷力 等에 있어서 엘리뜨와 非엘리뜨間에 큰 격차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側面에서 보면 政治意識이란 主로 엘리뜨에 의해서 操作·生成되어 非엘리뜨에게 一方的으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政治意識의 感性的, 評價的 側面에 力點을 두고 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예컨대 特定政策 또는 特定政權을 支持하거나 贊成하거나 反對하는데 있어서 一般大衆이 엘리뜨만큼 못할 理由는 없는 것이다. 또 엘리뜨가 大衆의 利害關係를 無視하고 자기의 利益만을 추구하거나 또는 大衆이 추구하는 어떤 理想과 高貴한 人間의 尊嚴性 따위를 짓밟을 때 大衆들은 마땅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感性的, 評價的 意識을 動員하여 反엘리뜨的 政治意識을 갖게 되는 것이다.

거기에 政治意識의 知的 側面에서 볼 때에도 오늘날과 같이 社會經濟가 發展하여 教育水準이 높아지고, 所得水準도 높아지고 通信媒體의 普及率도 擴散하여 全國이 一日生活圈化되고 中央政治의 일거수 일투족이 電波를 타고 深山幽谷의 山間僻地의 안방까지 그대로 파고 들어가는 時代에는 엘리뜨와 非엘리뜨間에 격차가 있다는 理論도 점차 그妥當性을 잃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大衆에게 自生的으로 生成된 政治意識과 엘리뜨에 의해서 操作·生成된 政治意識이 相互間에 符合될 경우에는 別問題가 없겠으나 相馳될 경우에는 相互交互作用을 일으키다가 끝내는 각종의 社會運動으로 번지게 되는 것이다.

3. 韓國人의 保守·進步主義意識

1945年 解放 이후 오늘날까지 40年間의 韓國政治는 保守主義로 일관하여 왔

다고 할 수 있다. 크게 두가지 要因이 韓國政治의 保守化에 寄與했다고 할 수 있다. 첫째는 分斷, 冷戰이라는 外的 要因이 韓國으로 하여금 反共을 國是의 第1義로 삼게 한 것이다. 反共을 나라의 理念으로 잡고 보니 反共法, 國家保安法 따위를 제정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러다보니 中央情報部(또는 安全企劃部) 軍情報機關 等을 設置·運營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러한 一連의 조치는 韓國政治를 保守化로 가게 하는데 주도적인 役割을 한 것이다. 둘째는 內的 要因으로서 韓國의 엘리트는 물론이고 一般大衆에게도 널리 퍼져 있는 祖國의 近代化精神이다. 祖國을 近代化시켜 後進國의 隊列에서 벗어나 中進國隊列에 끼고, 다음에는 先進國隊列에 끼어야겠다는 韓國人の 「近代化熱」은 남달리 强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아울러서 지적할 것은 韓國의 一般大衆의 政治意識속에는 進步主義도 큰 자리를 차지해 왔었다는 것이다. 韩國人の 進步主義는 나라가 分斷되어 있고, 6·25戰爭이 있었고, 거기에 韓國社會가 「開放된」社會이기 때문에 過激性보다는 穩健性을 取해 왔다. 그러나 최근 韩國의 社會經濟分野에서 일어나고 있는 一連의 不美스러운 現狀들은 韩國人們의 進步主義를 過激主義로 몰고 가게할 素地를 多分히 안고 있다.

以上과 같은 事實을 밝히기 為해서 여기서는 韩國政治의 지난간 40年史를 第1~2共和國時代와 第3~5共和國時代로 나누어서 다루기로 한다.

(1) 第1~2共和國時代

第1共和國時代의 韩國政治엘리트의 政治理念을 보려면, 우선 解放 직후의 國內의 政治勢力 中에는 保守派, 中道派, 進步派 等 각양각색이 있었는데 크게 다섯 势力으로서, 이들을 極右派에서 極左派까지 順序대로 配列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極右派로는 李承晚博士의 獨立路線을 支持하면서 左派勢力에 단호히 對抗한 大韓獨立促成國民會가 있었고, 且 反共青年團體, 地主企業人, 自由職業人等 保守系의 社會名士(金性洙, 宋鎮禹, 元世勳, 尹潽善, 金渡演, 白寬洙, 張德洙, 金炳魯等)로 구성된 韩國民主黨이 있었다. 둘째, 穩健右派에는 上海臨時政府要人으로서 反共主義者이긴 하나 그 보다 民族의 團合에 至上價值를 두어 共產主義者들과의 협상을 마다하지 않은 金九가 이끄는 韩國獨立黨이 있었고, 세번째로 中道派에는 左右派의 協商과 合作으로서 聯立政府를 세우자는 金奎植의 民族自主聯盟과 安在鴻의 朝鮮國民黨이 있었고, 네번째로 穩健左

派에는 青年·學生側을 이끄는 呂運亨의 勤勞人民黨이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번째로 極左派에는 朝鮮共產黨이 主軸을 이룬 朴憲永의 南朝鮮勞勤黨이 있었다(韓昇助, 1977: 451).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第1共和國政府를 수립하기 為해서 48年 5月10日 實施된 制憲國會議員選舉에서 極右派를 除外한 다른 네 政治勢力은 지도자를 잃어 瓦解되거나, 허리가 잘린 「南韓單獨政府」의 수립을 反對한다는 理由로 不參하였기 때문에, 第1共和國政府는 分斷과 冷戰이라는 外的인 要因때문에 出帆 당시부터 保守色을 띠게 된 것이다.

第1共和國政府의 保守性은 그 이후 6·25戰爭으로 더욱 加重된다. 同戰爭은 韓國人의 政治意識속에 反共主義를 擴大適用시켜 50年代 後半期에 가서는 穩建左派政黨인 進步黨의 彙壓用으로도 쓰이고 또 同黨의 創設者인 曺奉岩의 處刑用으로도 쓰인 바 있으며, 심지어는 李承晚政權의 反對勢力 彙壓用으로도 쓰이고 言論彙壓에도 援用되었다. 그리하여 第1共和國政治는 結局에 가서는 李承晚政權에게 政治基盤을 제공한 自由黨과, 韓民黨의 뒤를 이은 民主國民黨 그리고 또 그 뒤를 이은 民主黨인 두 保守政黨에 의해서 左右되는 政治로 자리 를 굳하게 되었다.

60年の 4·19學生義舉로 第1共和國政府는 民主主義·反民主主義次元에서 볼 때에는 大幅의in 變化를 가져왔으나 保守·進步主義라는 次元에서 볼 때에는 第1共和國政府와 별차가 없었다. 이것은 60年7月29日 실시된 第5代 國會議員選舉結果에 잘 나타나 있다. 民議院의 경우에는 233個의 議席 中 保守政黨인 民主黨과 無所屬이 차지한 것은 각각 175席(75%)과 45席(21%)이며, 參議院의 경우에는 58席 中 31席(53%)은 民主黨에게, 20席(35%)은 無所屬에 갔다. 당시 左派系統인 社會大衆黨과 韓國社會黨이 차지한 議席은 兩黨것을 합해도 民議院의 경우 5席, 參議院의 경우 2席에 불과하였다(尹亨燮 1982: 321).

그러면 第1~2共和國當時의 韓國의 一般大衆들의 政治意識은 保守·進步主義次元에서 볼 때 어떤하였는가? 당시 一般大衆의 경우에는 정치엘리트와는 달리 進步主義가 비교적 강했었다. 물론 이들의 進步主義도 당시 國土의 分斷, 冷戰, 6·25戰爭 等 外的 要因들 때문에 直接 곁으로 表面化되지는 못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그들의 意識은 行動化의 양상을 띠었다. 크게 두가지 實例만 소개하기로 한다.

첫째는 國會議員選舉때의 일이다. 第1共和國때 國회의원선거는 48年の 第1代, 50年の 第2代, 54年の 第3代 및 58年の 第4代等 모두 네번이 있었는

데, 당시 우리 국민들은 58년의 第4代 선거를 除外한 1代, 2代, 3代 선거 시 韓國의 保守野黨인 韓國民主黨 또는 49년에 그 후계자가 된 民主國民黨에게 각각, 29席(200席 중), 24席(210席 中), 15席(203席 中)을 주는데 불과했었다. (尹亨燮, 1982) 58년의 第4代 선거시 民國黨의 뒤를 이은 民主黨이 얻은 의석은 일약 79석(233席 中)으로 대폭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후술하겠으나 韓國人의 정치관심이 「民主化」 또는 「獨裁의 打倒」라는 측면에 集中되었기 때문에 나온 현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韓國政治의 「民主化」라는 측면이 政治의 前面에 강하게 나타나지 않았던 48年, 50年, 54年의 선거시에는 韓國의 有權者들은 韓民黨·民國黨所屬人士들이 日帝時代에 獨立運動을 전개하였고 第1共和國時代에 政治的으로 著名人士였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정치적 支持를 주는데 인색하였다. 理由는 이들 政黨이 가지고 있는 保守性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두번째는 56년의 第3代 大統領選舉때의 일이다. 당시의 선거는 51년의 拔萃改憲, 54년의 四捨五入改憲等의 理由로 有權者들에게는 「民主化」가 第1의 關心事로 등장하여 선거는 民主黨의 申翼熙候補間의 對決로 전개되었는데, 선거 후반기에 가서 申翼熙先生의 급서로 李承晚候補와 進步黨의 曹奉岩候補間의 對決로 바뀜으로써 선거의 爭點도 民主化나 獨裁나의 次元에서 保守나 進步主義나의 次元으로 옮겨졌다. 당시 선거결과 서울市民의 경우에는 유효투표 중 40퍼센트 以上을 서거한 申翼熙先生에게 보냄으로써 民主化에의 強한 關心을 表明하였으나, 韓國有權者 中相當數는 進步黨의 曹奉岩候補에게 支持를 보냈다. 당시 갓 생겨난 進步黨의 曹候補가 얻은 票는 李承晚의 505萬票에 比해 216萬票에 이르렀고, 또 全國 181個의 선거구 중 大邱 鎮洲 木浦 全州 井邑等 25個 선거구에서는 曹候補가 李承晚候補를 앞섰다는 것은 우리 有權者들의 進步主義意識의 表現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韓昇洲, 1983 : 81-82).

우리 國民의 이와 같은 進步主義意識은 4·19學生義舉 이후 실시된 60年 7月 29일의 國회의원선거시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미 보인 바와 같이 이 선거에서 左派系統의 革新系政黨間 行動統一의 失敗때문에 빚어진 候補者의 亂立等 理由라고 해석되고 있으나(韓昇洲, 1983 : 196), 역시 重要한 理由는 60年の 3·15不正選舉와 4·19義舉 直後에 실시된 선거에 우리 國民의 強力한 民主化熱望이 反映되어서 나온 結果라고 할 수 있다.

(2) 第3~5共和國時代

韓國政治엘리트의 保守主義는 第3~5共和國時代에 와서 더욱 強化되었다고 할 수 있다. 理由는 分斷 冷戰이라는 外的 要因은 이 時代에 와서도 그대로 계속 獨立變數로서 作用하고 있었고, 또 과거에는 別로 시도되지 않았던 近代化 政策이 強力하게 추진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혹자는 韓國의 주변정세가 70年代初에 들어와서 冷戰體制에서 데땅뜨體制로 移行되고 南北韓間에 對話가 進行되는 등의 정세변화를 보고 韓國의 정치엘리트의 反共意識도 크게 완화되지 않았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答은 부정적이다. 우선 데땅뜨라는 國제정치구조는 성격자체가 문제를 强大國間의 對話를 為主로 해서 풀어보자는 것이므로 때로는 韓國과 같은 弱小國의 利益이 회생될 수 있는 것이다. 거기에 당시의 韓國은 MI小銃 하나 제대로 생산할 能力を 갖추지 않은, 軍事的으로 허약하기 그지없는 나라였었는데 美國은 데땅뜨體制의 威力を 信奉하고 駐韓美軍 1個師團을 철수시켰다. 이러한 주변정세의 전개는 물론 韓國政治엘리트를 바싹 繁張시켰고, 아울러서 그들의 保守主義를 일층 强化시켰다고 해석할 수 있다. 韓國政治엘리트의 이와 같은 保守主義는 그 이후에도 큰 變化없이 지속되었다고 할 수 있다. 北韓은 땅굴, 도끼만행 等으로 계속 繁張行爲를 일삼았고, 70年代 후반에는 軍事力を 대폭 증가시켰고, 최근에는 소련과의 軍事協力を 서두르고 있다.

第3~5共和國時代에 韓國政治엘리트의 保守主義가 과거에 比해 더욱 强化된 것은近代化政策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韓國의 社會經濟發展을 主要 內容으로 한 近代化政策은 60年代初부터 朴正熙大統領에 의해서 추진되었다. 그의 目標는 당시 南北韓間 經濟力에 있어서 南쪽이 크게 뒤지고 있었는데 北쪽과 對決할 수 있는 經濟力を 키우자는 것이다. 이것은 朴大統領의 政治理念이었다. 그러다가 70年代初에 와서는 朴大統領의 政治理念 이외에 外壓에 의하여 더욱 強力한近代化政策을 추진해야 할 立場으로 몰린다. 이미 言及한 바와 같이 당시 韓國은 MI小銃 하나 제대로 못 만드는 軍事的으로 허약한 나라였는데 美國은 駐韓美軍1個師團을 철수시켰고 또 나머지 1個師團도 곧 철수시킬 태도를 보였다. 따라서 北韓과 對話를 나누면서 時間을 얻어 그 시간내에 北韓과 對決할 수 있을 정도의 經濟力を 키우고 軍事力を 키운다는 것은 어쩔수 없는 韓國의 課題였다. 그리하여 70年代 후반에 가서 韓國의 經濟力은 北韓을

앞서기 시작하였고 中進國隊列에 끼게 되었다. 그러다가 80年代에 들어 와서 全斗煥大統領은 「先進祖國의 創造」를 政治目標로 세우고 있다. 과거에는 韓國의 近代化政策이 北韓과의 對決策으로 추진되었었는데 이제는 韓國을 中進國隊列에서 先進國隊列로 끌어 올리자는 뜻에서 추진되고 있다. 以上近代化政策의 추진은 한국의 政治엘리뜨에게 配分보다는 成長爲主의 政策에 力點을 두게 함으로써 그들의 保守主義를 더욱 強化시켜 왔다고 할 수 있다. 거기에 韓國의 成長政策은 多分히 外債에 의지하여 왔고 최근에는 外債償還ability이 점차 限界點에 이르러 以上과 같은 傾向을 더욱 加熱시켜 주고 있다.

그러면 第3~5共和國時代의 韩國의 一般大衆들의 政治意識은 保守·進步主義 次元에서 볼 때 어떠하였는가? 물론 一般大衆들도 엘리뜨들의 分斷論理 및近代化의 必要性에 對한 호소에 귀를 기울여 保守主義의 政治意識을 지녔을 것이다. 또近代化政策의 結果로 이룩된 괄목할만한 經濟成長은 韩國의 社會構造에 대폭적인 變化를 가져와 保守指向의in 中產層을 擴大시켜 놓았고, 勞動者階層中에도 成長의 惠澤을 만끽하는 者들이相當數 있을 것이다.

그러나 韩國의 近代化政策의 추진은 一般大衆의 政治意識속에 進步主義를 심어주었고, 그것은 종종 行動化되어 政治社會不安을 야기시켰다. 예컨대 70年 11月 서울의 平和市場의 전태일분신자살사건, 71年 9月 월남에 갔다가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고 귀국한 勞動者들이 KAL빌딩을 放火한 사건따위가 그것이다(姜珉, 1984. 9. 17) 또 70年代末의 동일방직사건, Y·H女工들의 新民黨 농성사건, 가톨릭農民會를 中心으로 한 합평의 고구마사건, 최근의 大宇勞組사건, 소값 폭락에 분통이 터진 農民들이 군중앞에서 소를 때려죽인 사건따위도 그러한 例들이다. 거기에 70年代의 학원소요는 主로「民主化」가 戰爭目標였는데, 최근에는 「民衆主義, 民族主義, 民主主義化」를 戰爭目標로 삼고 「Yankee, go home」의 口號까지 나오고 있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그것은 韩國의 近代化政策이 韩國社會構造를 階級指向의in 構造로 몰고 가서 생긴 결과인가? 다시 말하면, 앞에 열거한 諸葛藤은 階級意識의 表現인가? 이에 對해서는 선뜻 긍정적인 答이 나오지 않는다. 韩國의 Gini index는 他國들과 비교해서 그리 나쁜 편은 아니며, 누구나 热心히 일하면 돈을 벌고 出世할 수 있다는 社會移動의 可能성이 큰 社會이며, 거기에서 成就動機가 큰 社會이다.(宋復, 1985 : 109. - 126) 따라서 階級理論을 가지고 韩國社會의 갈등현상을 설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면 앞에 열거한 제 갈등

현상은 무엇에서 起因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가? 크게 세 가지 要因을 지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韓國의 빠른 社會經濟構造의 變化이다. 예컨데 1960年 한국의 도시인구(人口 2만이 상지역)는 980만, 농촌인구는 1520만이었는데, 1983年에는 전자가 2860만, 후자가 1100만이라든지(吉昇欽, 1985 : 302), 한국의 中產層 이상의 계층이 1960년의 20.5%에서 1980년에는 40.3%로 대폭 증대했다는 사실 따위가 그것을 立證하고 있다(宋復, 1985 : 113) 지나간 20여년사에 있어서 한국의 農民들은 대거 離農하고 도시로 도시로 몰려 들다 보니 따뜻한 농촌의 共同體的 社會에서 離脫하여 도시의 찬바람 속에서 허탈감, 소외감에 빠지게 되고, 또 도시에서 定着될 때까지는 最下層의 貧民生活을 영위해야 하는 「달동네」에서 살아야 한다. 둘째는 소위 韓國의 特權階層들이 한국국민들에게 相對的 박탈감을 준다는 사실이다. 韓國의 特權階層이라면 크게 두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최근의 各種 금융부조리 사건이 보여 주듯이 財閥과 政治權力間に 野合의 結果 생긴 特權層, 다른 하나는 한국의 都市計劃政策, 證券管理政策等의 失敗에서 由來되어 생기는 갑자기 치솟는 땅값, 집값, 건물값, 증권값 등의 폭등으로 B集團은 갑자기 회생되었는데 A集團은 일약 大甲富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들 特權層 中相當數는 피와 땀을 흘려서 대부호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猥富的 消費樣式를 助長하여 社會에 違和感을 퍼뜨리고 도시의 서민층에게는 물론 중산층에게도 상대적 박탈감을 주어 政治社會의 不安을 조성시키고 있다. 마지막 세번째는 과거 特히 維新政治下에서 反獨裁運動, 民主化運動을 전개한 政治勢力들에 對한 政治彈壓에서 그 由來를 찾아 볼 수 있다. 그勢力에는 學園 또는 言論界에서 追放을 당한 社會運動家, 反體制的 大學教授 및 文人, 그리고 社會의 進步化에 關心을 떼푸는 宗敎人 等 각계각층의 人士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政府의 反民主化政策뿐만 아니라 政府의 일거수일투족 중 非合理的이고 非正常的인 非違事實은 낱낱이 파헤쳐 경우에 따라서는 擴大暴露도 서슴치 않고 있다.

4. 韓國人の 民主主義意識

여기서 말하는 「民主主義」란 人民民主主義, 自由民主主義, 教導民主主義, 經濟民主主義 等 가지 가지 형태의 民主主義 中 自由民主主義를 가리킨다. 自由民主主義란 一般市民이 政治過程에 있어서 어느 정도나 參與하고 發言權을 높

일 수 있느냐를 따지자는 것이다. 우선 言論·出版·集會·結社 等의 기본권은 어느 정도나 보장되어 있는가, 勞組 經濟人團體, 農漁民團體 等은活性化되어 있고 상호간에 정치적 균형은 이루어져 있는가, 復數政黨制가 보장되어 있으며 여러政黨間에 均衡發展이 이루되어 있는가, 議會는 活性化되어 있고 對行政府優位를 유지하고 있는가 따위를 따지는 것이 自由民主主義이다. 다시 말하면, 自由民主主義란 市民의 政治的 自由를 어느 정도나 확장시켜 주는가를 따지는 民主主義이다.

民主主義를 이와같이 自由民主主義로 놓고 볼 때, 지나간 40年間 韓國 政治 엘리뜨의 民主主義史는 어떠하였는가? 물론 否定的인 답이 앞선다. 현법개정은 10여차례나 있었고, 政治變化도 잦아서 現在에는 第5共和國에 이르렀고, 한때에는 國會議員의 3分의 1을 大統領任意대로 선정하는 維新政治體制마저 가져 본 적도 있었다. 그러나 지난 40年間 大統領選舉(直選制)는 6차례나 치루고, 國회의원선거는 모두 12번이나 치루었고, 때로는 地方議會選舉도 치루었다는 사실은 대단히 중요하다. 政治엘리뜨는 선거를 치루기 為해서는 선거구 민과의 잣은 접촉도 가져야 하고 對民奉仕經驗도 축적해야 되고, 자기 지역구에 정당조직도 설치·운영해야 되고, 또 中央政治에서는 정당속에서 黨員 및 黨幹部生活도 배워야 하고, 또 선거에서 승리한 政治엘리뜨는 議會에서 議會生活을 해야 한다. 그리는 과정에서 政治엘리뜨는 자연히 民主主義가 要求하는 民主的 資質을 갖게 되고, 結局 한나라의 民主主義는 이들이 가진 民主的 資質에 의해 左右되고 흥망성쇠가 決定된다고 하겠다.

그러면 韓國의 政治엘리뜨의 경우는 어떠한가? 韓國의 政治엘리뜨는 成熟한 民主的 資質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밖에 말할 수 없다. 물론 여러가지 理由가 있다. 韓國의 儒敎 및 權威主義的 政治文化, 官尊民卑의 傳統, 거기에 최근의 祖國近代化 政策에서 由來된 行政府優位傾向等이 중요한 理由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비슷한 民主主義의 沮害要因들은 이웃의 日本과 같은 나라에서도 발견되는 것들이다. 따라서 좀 더 다른 곳에서 그 理由를 찾아 보아야 한다. 크게 세가지로 說明이 가능하다.

첫째는 짧은 民主政治史와 잣은 政治變化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理論上 政治엘리뜨의 民主的 資質은 政治經歷이 짧은 사람보다는 긴 사람에게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이미 言及한 바와 같이 선거를 많이 치루어 보거나, 정당 또는 의회생활을 많이 해 본 사람은 民意所在把握이 빠르고, 정당 의회생활을 通하여

民主的 資質을 갖추는 법이다. 그러나 韓國의 경우에는 先進民主國家와 비교 시 民主主義史가 너무나 짧다. 1985年 현재 불과 40年, 또는 37年에 불과하다. 美國이 1789年 이후, 英國이 1832年 이후, 프랑스가 1848年 이후, 日本이 1890年 이후 선거제도를 갖추기 시작했고 이와 더불어서 정당·의회제도를 정비해 온 것에 比하면, 확실히 1948年 이후 이러한 制度를 갖기 시작한 韩國의 民主主義史는 짧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거기에 韩國의 경우에는 잦은 政變이 있었고, 政變과 더불어서 民主政治經驗이 짧은 소위「新人」들이 등장하였다. 이런 傾向은 特히 執權與黨의 경우에 더 강하기 때문에, 韩國에서는 오히려 野黨人士들이 더 많은 民主的 資質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두번째는 分斷의 悲劇이다. 分斷때문에 歷代政府는 反共을 「國是의 第1義」로 채택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 政治安定, 社會安定에 萬全을 기하지 않을 수 없고, 또 國力培養, 軍事力培養에 力點을 두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그 目的遂行을 爲해서 60萬大軍을 유지하지 않을 수 없으며, 安全企劃部(前의 中央情報部), 軍情報機關, 警察機構 따위를 設置·活用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 結果 軍出身 政治人們은 어느덧 強力한 政治勢力이 되어 政治에 介入하고 있으며, 한편 安企部, 軍情報機關 따위는 韩國의 각종의 社會集團, 政黨, 議會 및 다른 機構의 行動반경을 위축해 온 것이다. 마지막 세번째는 特히 與黨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이지만 軍出身政治엘리뜨의 政治理念이다. 軍과 政治와의 關係를 오랜간 研究한 美國의 시카고大學校의 제노위츠教授에 의하면, 軍人們은 職業上 보통 강력한 民族意識과 民族主義感情, 清教徒的 潔白性과 勤儉意識等을 갖게 되고, 더우기 民間政治人을 不信하고 政黨政治를 혐오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Janowitz, 1964 : 63-66 ; 韓昇助, 1982 : 563-65에서 再引用) 韩國의 政治는 1961年 5·16軍事革命 이후 거의例外없이 軍出身 政治人們에 의해서 支配되어 왔다. 따라서 이들의 몸에 뱜 以上과 같은 자질들은 韩國 政治엘리뜨로 하여금 民主主義資質을 갖추게 하는데 陰陽으로 沮害要因으로 作用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韩國의 一般大眾의 民主主義意識으로 눈을 돌리기로 한다. 韩國의 一般大眾의 民主主義意識은, 韩國의 儒敎官尊民卑, 中央集權等 權威主義의 政治文化, 거기에 政治엘리뜨에 의한 反共主義,近代化 호소에도 불구하고, 남 달리 강하다는 것을 보여왔다. 이것은 지난 40年間의 韩國의 選舉史에 여실히 나타나 있다. 예컨대 第1共和國 당시 傳統野黨인 韓民·民國·民主黨의 得票

史를 보면, 1948年 韓民黨이 얻은 議席은 29席(200席 中), 1950年 民國黨은 24席(210席 中), 1954年 民主黨은 15席(203席 中)에 불과하였는데, 1958年 民主黨이 얻은 議席은 일약 79席(233席 中)으로 뛰었다(尹亨燮, 1982: 321). 이것은 당시 李承晚政權에 의한 1951年의 抜萃改憲, 1954年의 四捨五入改憲, 1956年의 張勉副統領狙擊事件等一連의 계속된 反民主化措置가 韓國有權者의 民主主義意識에 否定的으로 反映된 結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다가 政府가 60년의 3月 15日 正·副統領選舉時 대대적인 선거부정을 감행하자, 韓國의 一般市民은 4·19學生義舉 이후 7月29日 실시된 國會議員選舉時 民主黨에게 民議院議席 233席 中 175席, 參議員議席 58席 中 31席을 각각 안겨 주었다.(尹亨燮, 1982) 또 67年 第7代 國회의원선거시 당시의 野黨인 新民黨이 얻은 것은 28席(131個의 지역구의석 중)에 불과했었는데, 69年的 朴正熙大統領에게 3選을 許用한 憲法改正으로 體制問題가 政治前面에 등장하고 난 이후 실시된 71年的 第8代 國회의원선거시 韓國有權者는 新民黨에게 일약 65席(153個의 지역구의석中)을 안겨 주었다.(尹亨燮, 1982) 이어서 72年에 등장한 維新政治體制의 非民主性의 深度를 韓國有權者가 이해하고 난 이후 78年에 실시된 第10代 國회의원선거시 그들은 당시 社會經濟發展에 눈부신 업적을 낸 民主共和黨에게 31.7%, 新民黨에게는 32.8%의 지지율을 보였다.(中央選舉管理委員會 1980: 498) 즉 後者の 得票率은 前者에 比해서 1.1% 더 높았다. 上以上的 韓國의 國회의원선거사는 韓國有權者의 정치의식수준이 비교적 낮은 때에나 또는 비교적 높아진 때를 불문하고 政府가 反民主性을 보일 때에는 反應이 敏感했다는 것을 여실히 가리키고 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비교적 強力한 韓國의 一般大衆의 民主主義意識은 어떻게 生成되었는가?

本稿는 크게 세가지 사실을 지적하려한다. 첫째는 傳統的으로 내려오는 韓國人의 소위 「다부진 抵抗心理」라고 할 수 있다. 市民의 抵抗心理란 어느 나라에서나 발견된다. 政治權力의 翻爭史가 있었던 나라라면 勝者와 敗者が 있는 법인데, 패자는 승자에게 對決하기 為해서 理論展開를 하거나 對抗勢力を 규합할 것이다. 예컨대 한국의 경우 과거 李朝時代의 土農工商의 身分制度를 打破하기 為하여 東學運動이 있었던 사실등이 그러한 例들이다. 그런데 여기서 강조해야 할 것은 韩國人의 以上과 같은 反抗心理는 韩國의 特殊條件 속에서 더 옥 堅固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우선 그 例로 한국의 지정학상의 이유를 들 수

있다. 한국은 歷史上 주변 강국에 둘러싸여 國運이 이리저리 흘려다니던 나라이다. 따라서 外勢에 의한 종속에서 벗어나려는 사상은 남달리 강력했고, 이것은 그대로 저항사상으로 이어졌다. (노재봉, 1976) 거기에 또한 한국은 소위 「王道主義」, 「民本主義」의 儒教圈의 傳統을 이어 받은 나라이다. 統治者는 百姓에 대하여 仁·慈悲·善政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統治者가 만일 이러한 倫理觀에서 어긋나면百姓으로부터 강력한 질시를 받고 저항을 받은 것이다. 以上과 같은 與件下에서 한국에서는 오히려 강력한 自由主義의 傳統이 배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한국의 자유주의 정신은 바로 이상과 같은 자유주의에 그起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韓國人에게 民主主義意識을 갖게 한, 두번째 背景으로는 韓國이 西歐, 特히 美國과 접촉이 잦았던 데에서 찾아 볼 수 있다. 韩國人은 儒教圈의 政治文化 속에서 지냈기 때문에 西歐의 自由民主主義에는 생소하였다. 그러나 舊韓末 때부터 西歐, 特히 美國과의 접촉이 시작되면서 선교사들이 國內에 들어와 종교 활동은 물론 교육사업까지 전개하면서 自由民主主義理想에 접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1945年 해방이 되고 美國과의 접촉이 本格化되면서 한국에는 自由民主主義의 물결이 엄청난 속도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우선 한국의 第1共和國憲法 그 자체가 美國式 헌법을 본떠서 만들어진 것이며, 교육제도도 美國式 自由民主主義의 要素가 안들어간 것이 없을 정도였다(金信福, 1980 : 41~43) 거기에 大學生, 知識人們이 접한 해외서적이라면 대다수가 美國에서 출판된 것이며, 또한 人的交流도 美國과 가장 활발하였다. 때로는 美國의 對韓國 영향력이 지나치다고 해서 「국적있는 교육론」「한국적 민주주의」가 제창된 바 있으며, 정권적 次元에서 한미관계가 批判도 되고 있다. 그러나 韩國의 젊은 大學生 및 지식층에 뿌리깊게 내려져 있는 自由民主主義 및 政治的 多元主義는 바로 美國과의 접촉에서 生成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 세번째는 60年代初부터 추진된 한국의 社會經濟發展이 韩國人의 정치의식 수준을 꾸준히 높여 놓았으며, 이것은 곧바로 民主主義意識을 擴張시켰다. 사회경제가 발전하면 市民의 정치의식이 높아지고 市民意識을 民主化시킨다는 것은 文獻에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사회경제가 발전하면, 자연히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도시화가 진행되고, 교육수준도 높아지고, 通信媒體의 普及率도 擴散되고, 이에 따라서 市民의 思考方式도 多樣化되고, 政治關心도 높아지고, 政治的 要求 期待感도 높아지는 법이다. 물론 北韓과 같이 鐵의

帳幕을 치고 철저한 閉鎖政策을 채택하고 있는 全體主義社會에서는 社會經濟發展과 市民의 民主主義意識의 擴散과 相關關係가 弱하겠으나, 대부분의 開放된 社會에서는 그 關係가 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은 정치제도적으로 때로는 정치탄압, 언론탄압, 정당·의회기능의 축소등 폐쇄정책을 택하기도 하고 때로는開放政策을 採擇해 왔다. 예컨데 第2共和國에서는 비교적 발달된 자유민주적 정치제도를 채택하고, 第3共和國때에는 中央集權의 대통령중심제, 第4共和國때에는 維新政治制度, 第5共和國에 들어와서는 制度圈中心의 정치제도등 民主主義의 起伏을 경험해 왔다. 그러나 1963年, 78年 및 85년에 각기 실시된 韓國國民의 정치의식조사결과에 의하면, 한국인의 정치의식, 민주주의의식은 이상의 정치제도와는 無關하게 꾸준히 개선되어 왔다. 이상의 세 조사에 의하면, 각 조사는 설문대상자들에게 「선생님은 이러한 선거가 없는 평상시에는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까?」라는 설문을 제시하였는데, 이 설문에 「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63年 조사에서는 39.9% 85년 조사에서는 61.6%로 각각 上昇하였다.(吉昇欽, 1985 : 305) 아울러서 상기 조사는 「선생님은 이번에 선출되는 국회의원에게 무엇인가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라는 설문을 제시하고, 이 설문에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78年 조사에서 35.4% 85年 조사에서는 48.6%였다.(吉昇欽, 1985 : 309) 이상과 같은 사실은 한국에서 추진되어 온 社會經濟發展이 그 나름대로 한국인의 정치의식수준을 向上시키는데에 「힘」이 있고 「추진력」이 있다는 것을 여실히 입증하고 있다.

以上 한국의 과거사에 民主主義意識이 있었고, 또 그것은 西方國家 特히 美國과의 접촉에서 由來된 自由民主主義로 더욱 補強되었고, 또 그것은 최근 韓國에서 이룩되고 있는 社會經濟發展으로 더 한층 補強되고 있다는 것을 소개하였다. 따라서 최근의 韓國의 一般大衆들의 民主主義意識은 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5. 結論

以上 本稿는 韓國人的 政治意識을 保守·進步主義次元과 民主主義次元으로 나누어 과거 40年間의 變化를 보아왔다. 이를 간략하게 要約하면, 다음의 두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이들 의식의「感性的」(affective)側面에서

본 것인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지난 40년간 別變化가 없었다는 것이다. 우리 국민은 정치적 의식수준이 비교적 낮은 50年代에도 保守主義에 강력히 반발하여 1948年, 50年, 54年 선거시 당시의 保守野黨인 韓民黨과 民國黨에게 낮은 支持率을 보였다. 民主主義次元에서도 마찬가지이다. 政治體制問題가 政治의 前面으로 등장할 때 우리 국민은 정치의식 수준이 낮은 50年代에나 비교적 높아진 70年代 80年代에도 投票를 통해 그들의 反對意思를 나타내었다. 58年の 國會議員選舉, 71年 78年 및 85年の 國會議員選舉時의 경우가 그例이다.

둘째는 韓國人の 政治意識을 「知的」(cognitive)側面에서 본 것이다. 이 측면에서 보면, 한국인의 정치의식은 지난 40年間 크게 개선되었다. 물론 여기에 주도적인 役割을 하고 있는 것은 한국의 國際化, 開放化에 따른 西方社會와의 접촉이라는 外的 要因과 韓國의 社會發展이라는 內的 要因이다.

이들 두가지 要因은 相互補完하면서 한국인의 進步主義, 民主主義 정치의식을 계속 높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사회의 계급성은 큰 문제거리가 아니다. 갈등요인이 있다면, 그것은 大財閥과 政治權力間의 結託으로 인해서 생기는 特殊階層, 그리고 非生產的 所得階層(不動產 投機 및 賃貸業者等), 거기에 이들 階層에 의한 사치조장 및 猥富的 소비양식따위가 社會에 違和感을 조성하고, 이것은 특히 학생층, 지식층, 도시의 중산층에게 지탄의 對象이 되고 있는 것이다.

설상가상 오늘날의 한국사회에는 과거 유신체제에, 그리고 第5共和國政府 수립을 前後로 하여 학원, 언론계, 문학계 등에서 주방되어 一身上 不利益을 받은 세력들이 상당수 있다. 이들은 不滿의 화살을 한국의 特殊階層에게 돌리어 그들에 의해서 조장되고 있는 社會의 不條理 非違事實들을 真實히 파헤쳐 特히 學園街에 擴大폭로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학원가에서 거론되고 있는 民衆主義, 民主主義는 바로 이런 사실에 그 起原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分斷때문에 北韓과 對決할 수 있는 國力培養이라는 기치하에 近代化政策이 추진되고 그 과정에서 생긴 도시 및 농촌의 빈곤층이 생긴다고 把握하고, 이들을 구제하기 為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統一이 先行되어야 한다는 소위 「民族主義」까지 보면, 오늘날의 「3民主義」의 內容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참 고 문 헌〉

Berelson, Bernard R. et al.

1954 *Voting*(Chicago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Mosca, Gaetano

1939 *The Ruling Class* (New York:McGraw-Hill Book Co., Inc.)

Walker Jack,

1966 "A Critique of the Elitist Theory of Democracy."

Schumpeter, Joseps A.

1942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New York : Harper Torchbooks)

Janowitz, Morris

1964 *The Military in the Political Development of New States : An Essay in Comparative Analysis*(Chicago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Wahl, Robert A.

1962 *Who Governs?* (New Haven : Yale University Press)

Fletcher, Ronald

1971 *The Making of Sociology : A study of Sociological Theory*(Exeter, Britain : A Wheaton and Co.)

Lipset, Seymour M.

1959 *Political Man*(New York : Doubleday and Co.)

Parsons, Talcott and Edward A. Shils, eds.

1951 *Toward A General Theory of Action*(New York : Harper Torchbooks)

姜珉

1984 “韓國政治體制의 構造的 特性：權威主義을 中心으로” 84年 10月 韓國政治學會·現代社會研究所 共同主催의 學術大會 發表論文。

吉昇欽

1985 「第6回 合同學術大會論文集」韓國政治學會·在北美韓國人政治學者會。

金信福

1980 “韓國의 教育發展(1945年 以後), 金榮奉·N.H. 맥긴外 共著, 韓國의 教育과 經濟發展, 서울 :韓國開發研究院。

盧在鳳

1976 “現代韓國의 政治思想에 있어서 方法의 問題”, 韓國思想研究院, 韓國思想의 現代的 課題。

宋復

1985 “계급 갈등과 계급구조”, 한국사회학회편, 한국사회와 갈등의 연구 (서울 : 현대사회연구소)

尹謹植

1977 “韓國政府形態”，金雲泰外 共著，韓國政治論(서울：博英社)，

尹亨燮

1982 “韓國政治過程”，金雲泰外 共著，韓國政治論(서울：博英社)。

中央選舉管理委員會

1980 大韓民國選舉史(第 3 輯：1974. 1. 1. ~ 1979. 12. 31)

韓昇助

1977 “韓國政治의 指導理念과 領導者”，金雲泰外 共著，韓國政治論(서울：博英社)

韓昇助

1982 “韓國政治의 指導理念과 領導者”，金雲泰外 共著，韓國政治論(增補版)

韓昇洲

1983 제 2 공화국과 한국의 민주주의，(서울：종로서적출판주식회사)。